경남도, 방산업체 해외마케팅 지원… 336만弗 수출 성과

올해 3.8억 투입, 24개社 판로 개척
베트남·폴란드 등서 수출계약 체결
내달 'UAE 방산수출사절단' 파견

경남도는 지난 7월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방산수출 사절단'을 파견해 총 29건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기대액 3460만 달러를 달성했다. /경남도

경남도가 도내 방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가 올해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방산업체 24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33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도내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방산수출사절단'을 파견, 베트남 하노이·호찌민에서 총 2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기대액 3460만 달러를 달성했다.

9월에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해 총 42건의 상담을 통해 계약기대액 4억 3917만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베트남 방산수출사절단에 참가한 A사는 현장에서 베트남 업체와 36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한 경도는 최근 동남아 B 기업과 300만달러의 방산 관련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 계약도 협의하고 있다.

경도 관계자는 "경남도 지원으로 방산 기업의 수출 시장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도내 방산 중소기업 메티스, 에어로매스터, 경도, 영풍전자, 우리에이치큐 5개사와 폴란드, 튀르키예, 독일 등에 소재한 6개 해외 기업 간 총 3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 체결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도내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UAE 방산수출사절단'을 아부다비와 두바이로 파견해 중동 시장 개척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K-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이 있는 경남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에도 방산 분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앞장설 계획이다.

양상호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 조선, 기계 산업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17개 축제·행사 'G-페스타 광주' 성료

예술·미식 주제로 구분해 운영
지역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

광주에서 펼쳐지는 17개의 축제·행사를 통합한 브랜드 'G-페스타 광주'가 29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광주시는 가을을 감동과 재미, 맛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2024 G-페스타 광주'가 막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12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17개의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통합한 브랜드 'G-페스타 광주'를 출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한달여간 선보였다.

예술을 주제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 미식을 주제로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예술적 감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즌1 '조이플'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와 추억의 충장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 '광주사운드파크 페스티벌'과 무대를 공유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광주에이스페어'에서는3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억6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액의 성과를 냈다.

'맛'을 주제로 열린 시즌2 '테이스트 광주'는 광주식품대전과 국제차문화전시회, 광주김치대축제, 광주송정남도 맛 페스티벌, 동명커피산책 등이 펼쳐졌다.

광주식품대전은 300개사가 참가해 45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상담 건수로 104억원의 상담액과 약 32억원의 계약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김치축제는 남도의 김치가 선보였으며 천인의 밥상,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 등을 통해 새로운 김치요리가 소개됐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 개막식 사진.

대구시, 미래 신산업 선도주자 발돋움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성료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13만3118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FIX 2024는 '혁신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463개 기업이 2071부스 규모로 참가해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생태계를 선보이며, 대구가 미래 신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흘간 이어진 행사에는 13개국 8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도 열렸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현대모비스의 e-코너 시스템을 장착한 실증 차량 '모비온' 등 혁신적인 콘셉트카가 주목받았으며, SKT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공동 조성한 UAM 특별관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비즈니스 성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78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1636건의 상담을 통해 총 19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매 상담회에도 52개 발주처가 참여해 654억 7000만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울산시, 고성능 배터리 생산공장 유치

㈜디엔오토모티브, 621억 투자

울산시가 621억원 규모의 고성능 배터리 생산공장을 유치함에 따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28일 오전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김인환 ㈜디엔오토모티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능 AGM 배터리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는 흡수 유리섬유를 사용해 전해액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누출을 방지하고, 잦은 충·방전에도 긴 수명과 높은 방전 성능을 가진 고성능 배터리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디엔오토모티브는 621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AGM 배터리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증설공장은 신일반산업단지(온산읍 처용리 581) 내 울산 1공장 유휴부지에 들어서며 2025년 11월 완공 목표로 한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150만대의 배터리를 생산하며, 대부분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공장 증설과 관련해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 박차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수립

경주시가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대응인력 운영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수립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경영과와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돼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터링 등 산불 신고 접수 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된 300여 명은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말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특히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전기버스 보급사업 시행

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1대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중형 최대 8642만원, 대형 1억70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신청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암군

영암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전남 영암군은 최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암공원 무장애 나눔길 사업비 4억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로 경사로를 완화하는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영암공원에 지역에서는 최초의 총 0.5㎞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영암군과 장흥군 등 두 곳이다. /영암(전남)=양수녕 기자

부산시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

부산시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포스코홀딩스, 한국퀀텀컴퓨팅과 '양자컴퓨팅 기반 미래혁신소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양자컴퓨팅 기반 미래혁신소재 분야 협력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양자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포스코홀딩스는 미래혁신소재 개발 등을 연구한다. 한국퀀텀컴퓨팅는 양자컴퓨팅 연구 기반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점검 실시

경남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28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립시설 7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8개소 등 폐기물공공처리시설 45개소다.

폐기물 적정 처리 등 운영 실태, 정기검사, 자기측정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관련 법령·지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남=이도식 기자